

하나로텔레콤과 이노비즈협회 상호협력 협정식

lecom

INN



>>> 함께하는 세상/ 하나로텔레콤

윤리경영 앞장서는 '하나로텔레콤'

부당한 '갑-을' 관계 청산 앞장...지난해 말부터 어음 지급도 폐지

하나로텔레콤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거래기업과의 원활한 파트너십 유지를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3년 수립한 사내 윤리강령에 따라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를 명문화하고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은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간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윤리강령' 에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편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거래처와 '갑과 을의 관계' 라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 협력사 어음 지급 폐지

또,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11월 이후부터 중소기업과의 계약 건에 대해, 어음 지급을 폐지하고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영과 영업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원활한 명절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은 2004년 10월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거래처 간 세금계산서 송수신을 인터넷을 통한 전자교환 방식으로 구현한 전자 세금계산서 방식을 전면 도입한 것.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장비·공사업체, 유통망, 물품 납품업체, 선유지업체, 광고업체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모든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교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일일이 우편이나 인편으로 처리하던 기존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시스템의 처리과정을 온라인상에 구현함에 따라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전표처리 시간과 비용이 혁신적으로 단축됐다.

당시 전사적으로 모든 거래처에 대해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것은 대기업 중 하나로텔레콤이 처음이었다.



이밖에도 하나로텔레콤은 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거래기업의 원활한 명절 자금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원-원 상생 사업모델 지속 발굴

하나로텔레콤은 디지털 융합화 추세에 맞춰 통신·방송 등 각 전문성을 가진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가 필수라고 판단, 타 사업자와 상생하는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모색하고 있다.

이미 방송분야에서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제휴를 맺어 포화된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 확보를 위한 사업자간 과열 경쟁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사업제휴 협정을 체결하고, 이노비즈협회 서울 본회에 그룹웨어와 기업용 전화서비스를 결합한 '하나웨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등 이노비즈협회 산하 8000여 개의 중소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컨버전스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이노비즈협회와 IT분야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스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육성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이러한 다양한 제휴 관계를 기반으로 지난해 7월 하나TV 서비스를 개시하며 미디어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올 11월말 기준으로 75만 명의 가입자를 모은 하나TV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인 월트디즈니 텔레비전을 비롯해 소니픽처스, CJ엔터테인먼트,

MBC, KBS, SBS, EBS, YTN, BBC Worldwide, 내셔널지오그래픽, 20세기폭스, 유니버설스튜디오, 쇼박스, 파라마운트 등 국내외 270여개 콘텐츠 회사와 제휴, 7만여 편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향후 콘텐츠사와 긍정적인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발전 가능성이 큰 IPTV 시장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